

# 구약논단

제 16권 1호(통권 35집) 2010년 3월 31일

이 유미(연세대) 전기문학적 관점에서 본 족장 이야기 .....	35
본 소고는 공시적인 입장에서 족장이야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서술 방식을 찾아내어, 이것이 단일 저자에 의해서 전기적 형식으로 저술되었음을 주장한다. 이 족장 이야기는 한 인물의 삶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쓰여진 페르시아 시대의 이방인과 공존해 살고 있는 팔레스틴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삶의 모델을 제시해 준다.	
Lee, You-Mee A Study of the Patriarchal Narrative through the Biographical Analysis .....	35

---

## 전기문학적 관점에서 본 족장 이야기

---

이 유미 | 연세대(강사)

### 1. 서론

19세기 문학 비평의 시작 이래로, 창세기 본문의 역사적 배경, 자료들, 저자의 연대, 그리고 전승사 등에 관심을 가미함으로써 성서를 역사 비평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구약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다.<sup>1)</sup>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창세기 및 오경의 최종 형태에 관심을 가지는 학자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오경에 대한 공시적 해석을 제시하며, 오경 구성과 형성에 창조적인 작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한다.<sup>2)</sup> 특별히 이들은 구약의

---

1) S. R. Driver,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1897; reprint, Gloucester, Mass.: Peter Smith, 1972); J. Skinn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 (Edinburgh: T. and T. Clark, 1930<sup>2</sup>); R. H. Pfeiffer,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1); G. von Rad, *Genesis*, trans. J. H. Mark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1); E. A. Speiser, *Genesis*, (New York: Doubleday, 1964); G. Fohrer,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rans. D. E. Green, (Nashville: Abingdon, 1968); J. A. Soggi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Westminster, 1976); G. W. Coats, *Genesis: With an Introduction to Narrative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4); W. H. Schmidt,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rans. M. J. O'Connell (London: SCM, 1984).

2) J. van Seters, *Abraham on History and Trad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5); *In*

오경 및 신명기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같은 작품들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심은 통시적인 이해가 주를 이루던 구약연구에 통전적 이해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본 소고는 이러한 공시적 입장에서 족장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해 보려는 시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전승들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초점이 전승이 아니라 전승을 사용한 방식과 그 의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족장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야기 전개 방식을 찾는 데에 관심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적 이야기 전개 방식을 하나의 장르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할 것이며, 새롭게 제시된 장르로 족장 이야기를 읽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은 무엇인지를 다룰 것이다.

## 2. 족장 이야기의 전개 방식

족장 이야기는 이야기의 초점이 개인의 삶에 맞추어져 있다. 이 개인의 이야기는 특정한 시기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닌 연대기적인 틀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다.

### 1) 서론—등장

족장 이야기의 서론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1) 족보와 (2) 출생 이야기 그리고 (3) 등장 배경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표1 참조).

먼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מִצְרַיִם הָאֵלֶּה*(엘레 톨러도트)이라는 표현과 함께 목록의 형식이 뒤따르는 경우와 이야기 형식<sup>3)</sup>이 뒤따르는 경우가 함께

*Sarch of History: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the Origins of Biblical History*, (New York: Vail-Ballou Press, 1981); *Prologue to History: The Yahwist as Historian in Genesi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R. N. Whybray, *The Making of the Pentateuch: A Methodological Study*, (Sheffield: JSOT Press, 1987), 225-230쪽. S. Mandell/D. N. Freedman, *The Relationship between Herodotus' History and Primary History*, (Atlanta: Scholars Press, 1993).

3) 목록 형식의 족보와 이야기 형식의 족보로의 구분은 학자들이 족보를 'A가 B를 낳고, B가 C를 낳고'와 같은 선적 계보(linear genealogy)와 한 세대에 여러 자손들을 언급하고 그 자손들의 씨족들로 연결하여 가계도를 형성하는 분할 계보(segmented genealogy)로 나누는 것과는 다르다. R. R. Wilson, *Genealogy and History in the Biblical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9쪽; Y. Levin, "Understanding Biblical Genealogies," *Currents in Research* 9 (2001), 12쪽. 본 논문은 목록 형식의 족보 안에 선적 계보와 분할 계보를 모두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보	10: 1-32 11: 10-26 11: 27ff.*		25: 12-18 25: 19ff.*	36장 37: 1ff.*
출생 이야기		21: 1-7	25: 19-26	30: 22-24
배경	11: 1-9		25: 27-34	37: 2-4

(표1) 창 11: 27ff.\*4)

아래의 표(표2)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목록 형식과 이야기 형식이 함께 언급되면서 각 인물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 개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족보 형식은 중요한 문학적 역할을 한다. 먼저 목록 형식의 족보는 과거의 뿌리와 현재의 주인공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며, 이야기 형식의 족보는 미래로 주인공의 삶을 끌어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족장들의 출생 이야기는 매우 전형적인 영웅 출생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sup>5)</sup> 불임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의 출생이다. 이러한 은혜의 출생은 부수적으로 그 형제들을 영웅의 빛에 가려진 불운한 경쟁자로 등장시킨다. 이러한 영웅적 요소들은 주인공이 어떻게 비범한 삶을 살아나가게 될 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포함시킨다. 이것의 언급 형태와 무관하게 이 둘은 공통적으로 목록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창세기 속에서 등장하는 족보의 기능과 족보 사용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족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목록 형식의 족보가 사용되는 자리와 내러티브 형식의 족보가 사용되는 자리에는 분명하게 구분이 나타난다.

4) \*표는 이야기 형식의 족보를 의미한다. *מִיָּמִין נִשְׁמָע*(엘레 툴러도트)이란 언급으로 시작되면서 목록이 등장하기보다는 내러티브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들이다. 이러한 형태는 족장 이야기 뿐 아니라 아담과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도 나타난다(창 2: 4, 25: 6: 9-12). 물론 크로스 같은 학자는 이와 같은 형태(그는 창 25: 19b를 언급하였다)가 다른 족보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서기관적 해석'(a scribal gloss)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73), 304-305쪽.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후대의 해석'으로 이 구절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전체 내러티브 안에서 이를 통해 드러나는 구조가 어떤 의미와 기능을 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5) R. Alter, "How Convention Helps Us Read: The Case of the Bible's Annunciation Type-Scene," *Prooftexts* 3 (1983), 115-130쪽.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목록 형식	10: 1-32 셈-함-야벳 족보 11: 10-26 셈의 족보	25: 12-18 이스마엘의 족보	36장 에서의 족보
이야기 형식	11: 27-32 데라족보+아브라함이야기	25: 19ff. 이삭족보+야곱이야기	37: 1-4 야곱족보+요셉이야기

(표2)

## 2) 절정—업적

출생/등장의 언급을 통해서 한 인물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면, 절정 부분에서는 주인공의 비범한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족장 이야기에서 이 부분은 주인공이 범인(凡人)에서 영웅으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로 시작된다. 그 계기는 바로 주인공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를 시작으로 주인공 중심의 사건 일화들이 전개된다. 주인공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표3 참조): (1) 말씀 (2) 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과의 접점	12: 1-9	26: 1-6	28: 10-22	37: 5-11
수단	말씀	말씀	꿈(상징+말씀)	꿈(상징)

(표3)

말씀을 통한 접점에서는 주인공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반면에, 주인공의 극적인 삶의 전개를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인 꿈 모티브는 직접적인 형태보다는 상징적인 방법으로 메시지가 전달된다. 상징적인 시나리오를 가진 꿈은 영웅의 변화(transformation)와 영웅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sup>6)</sup>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접점을 통해서 주인공의 삶은 그 방향이 결정되며, 이를 근거로 주인공 중심의 사건 일화들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일화들은 단지 독립적인 개별 이야기가 아니라,

6) J. -M. Husser, *Dreams and Dream Narratives in the Biblical World*, trans. J. M. Munro, (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Ltd., 1999), 18쪽.

접점을 통해 생성된 하나의 줄거리에 근거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전개된다. 다시 말해, 족장 이야기는 단지 일화 모음집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 3) 결말—죽음

한 인물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면서 마무리할 때에 가장 확실한 방식은 바로 죽음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죽음에 대한 언급은 전기 장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죽음 언급의 유무는 다른 성서 본문에서 한 개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른 장르들, 특별히 예언서와 분명하게 차별화 해 줄 수 있다. 예언서의 경우에 분명히 그 초점이 예언자 개인의 삶이 아닌 그의 예언 말씀에 있기 때문에, 예언자의 말씀이 핵심이고 그것으로 마무리된다.<sup>7)</sup>

이에 덧붙여, 족장 이야기의 죽음 언급 이전에 ‘마지막 연설’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만하다. 이 마지막 연설 형태는 그것이 유언의 형태이든, 혹은 축복 혹은 저주의 형태이든,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sup>8)</sup> 이는 주인공의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설명하며 미래를 예시하는 기능을 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족장 이야기는 공통의 서술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다. 또한 족보라는 특징적인 문학적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각 인물들의 이야기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준다. 이러한 공통의 형식과 이야기의 유기성은 일관된 주제로 이끈다. 이러한 공통의 서술 방식은 단일 저자와 그 저자가 의도하는 하나의 장르로 정의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한 저자의 신학적 해석을 엿볼 수 있다.

7) 사티루스의 ‘Euripides’가 훼손되어 일부 단편들만 현존해 있지만, 모미글리아노가 이를 전기 장르로 이해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남아 있는 조각 중 에우리피데스의 죽음에 대한 언급(Frag. 39. xx.22-26: ‘이는 에우리피데스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다.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이 조각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이 언급 자체는 바로 “에우리피데스의 삶을 다루는 부분에서, 그 시인의 죽음을 다루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며, 이는 분명하게 전기적인 의도를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Momigliano, *The Development of Greek Biography*, 80쪽.

8) 아브리함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의 족장들은 죽음 직전 1인칭 연설 형태가 등장한다. 이삭은 축복의 형태(창 27: 1-45)로 야곱은 축복과 유언의 형태(창 48-49장)로, 요셉은 유언의 형태(창 50: 24)로 나타난다.

### 3. 전기 장르와 족장 이야기

#### 1) 전기 장르

전기란 한 개인의 역사이다. 이 개인은 역사적으로 의미를 지닌 자이며, 전기 장르는 바로 그 인물에 중점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삶을 기술한다고 해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 개인의 일대기, 즉 삶을 기술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저자의 전제와 가치 판단 그리고 목적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되어 표현될 수밖에 없다.<sup>9)</sup> 이렇듯 선별된 개인의 이야기는 특정한 문학적 구조 안에서 배열된다.

전기의 구조의 특징은 바로 연대기적 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sup>10)</sup> 주인공의 이야기는 연대기적 틀에 맞추어 진행되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주제적인 일화들이 삽입되어 나타난다. 크세노폰의 *Memorabilia*가 소크라테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로서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연대기적 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역사적 순간에서 원칙상 분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일화 같은 개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sup>11)</sup>

9) 이러한 선택성에 대한 지적은 모미글리아노의 그리스 전기의 발전에 관한 짧지만 영향력 있는 책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전기를 “출생에서 죽음까지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기의 개념은 한 인간의 전 생애 동안의 일을 ‘완전하게’ 전해 준다는 개념이기보다는 항상 ‘전체로부터의 부분’(partem pro toto)이라는 선택성을 통해서 전기에 완전성이 이루어지는 역설적 개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A. Momigliano, *The Development of Greek Biography*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11-12쪽. 또한 선택성에 동의하는 학자로 J. Blenkinsopp, “Biographical Patterns in Biblical Narrative,” *JSTOT* 20 (1981), 27-46쪽, 특별히 31쪽도 참고. 버릿지도 역시, 전기가 출생부터 죽음까지 주인공의 전체 삶을 다룬다는 정의에 대하여, 고대 그리스 전기의 예를 통해, 출생부터 죽음까지 골고루 다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이소크라테스, 크세노폰, 네포스, 그리고 필로 등의 그리스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내용의 비중이 공평하지 않게 나타나며, 저자가 그 인물에 대하여 강조하고 싶은 사건에 대해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R. A. Burridge,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aeco-Roman Biography*, 131-133쪽의 표를 참조하라.

10) Burridge, *What are the Gospels?*, 136쪽.

11) O. Gigon, *Kommentar zu Xenophons Memorabilien*, vol. 2, (Basel: Freidrich Reinhardt, 1956), 191쪽, 재인용 Burridge,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aeco-Roman Biography*, 136쪽, no. 27.

이러한 장르 차이의 예는 그리스 문헌뿐 아니라 성서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예언서가 바로 그 예이다. 예언서 역시 한 명의 예언자가 주인공으로서 등장하지만, 예언서 자체가 전기문학으로 정의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전기가 가지고 있는 연대기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언서는 연대적 순서로 예언자의 삶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한 순간에 그를 통해 행해진 예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전기문학은 연대기적으로 서론-본론-결론이 뚜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한 인물의 삶의 처음과 절정, 그리고 끝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전기는 출생이든 혹은 공적인 삶의 출발점이 분명하며, 본론에서 삶의 절정을 보여주고, 죽음 언급으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이러한 연대기적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저자는 내용을 선별하고 선택하여 전기문학을 구성한다. 전기 장르의 구조적 틀과 그 안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표4 참조).

연대기적 틀	핵심 주제 및 내용	관련 일화들
서론	출발점	출생, 등장 배경, 족보
절정	주인공의 업적	인물에 따른 다양한 일화
결말	주인공 삶의 종결점	죽음

(표4)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언급되는 페르시아 왕들의 전기적 이야기 속에서도 이러한 연대기적 틀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기원전 4세기 이후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전기문학으로 대표되는 작품을 통해서도 이러한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sup>12)</sup> 현존하는 대표적 전기문학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표5 참조).

주인공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가장 좋은

12) 모미글리아노는 그리스 전기의 발전과정을 추적하면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장르가 아니라, 기원전 5세기부터 시작되어 차츰 발전하여, 결국 소소학파를 통해서 완전한 전기 장르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한다. 그는 특별히 전기가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동방에서 그리스에 전해졌으며, 발전 장르가 헤로도토스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의 역사를 다룬 역사에 그와 관련된 인물의 전기를 다루고 있었던 반면, 페르시아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전기적 언급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A. Momigliano “Eastern Elements in Post-Exilic Jewish and Greek Historiography” *Essays in Ancient and Modern Historiography*, (Oxford: Basil Blackwell, 1977), 25-35쪽.

방식은 바로 선조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 그의 뿌리와 정체성을 밝히는 것임을 그리스-로마 전기문학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또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주인공의 삶은 그의 영웅적 업적을 통해서 두드러진다(표5 참조).

헬라-로마 전기문학	서론	절정	결말
이소크라테스 '에바고라스'	조상에 대한 이야기와 출생 이야기	주요업적(전쟁) + 나머지 행위들	후손에게 훈계하기 위한 평가
크세노폰 '아게실라우스'	조상에 대한 이야기	주요업적(전쟁) + 나머지 행위들	죽음
네포스 '아티쿠스'	조상에 대한 이야기	주요업적(전쟁) + 나머지 행위들	죽음
필로 '모세'	갈대인 조상과 출생 이야기	주요업적(왕) + 나머지 행위들	죽음

(표5)

이 절정을 구성하는 주제적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요 업적과 주인공의 나머지 행위들에 대한 일화들이다. 주요 업적은 저자가 주인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주제와 관련하여 설정된다. 이는 주인공의 신분과 매우 밀접하며, 만일 주인공이 정치인이나 왕이라면 주로 전쟁과 관련이 있으며, 철학자라면 그의 철학적 업적이 주요 업적이 된다.

반면 나머지 행위들은 이 주요 업적 이외에 주인공과 관련된 일화들에서 소개된다. 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나타난다. 또한 특징적으로 전기는 이야기를 끝맺는 방식으로, 주로 주인공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의 '에바고라스'에서는 그의 아들 니코클레스에게 권고하기 위해서 에바고라스에 대한 평가로 끝을 맺고 있는 대신에, 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에바고라스가 살해되었기 때문에, 그의 업적을 기리는 이야기 속에서 고의적으로 죽음의 언급이 빠지기도 한다는 설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13)</sup>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주인공 인생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방식이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 속에서 한 인물의 삶을 마감할

13) Burridge,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aeco-Roman Biography*, 136쪽.

때에 나타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특별히 이소크라테스에서 보여주는 연설 형식은 성서 속에서 죽음 직전 주인공들의 연설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 장르의 기능은 무엇인가? 전기 장르는 단순하게 과거 영웅의 삶을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저술되는 장르가 아니다.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일차적으로는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선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sup>14)</sup> 전기는 개인의 삶을 통해 그것이 쓰인 시기의 사람들의 삶의 모범을 제시해 주려는 목적을 갖는다. 즉 그 개인의 삶에 대해 듣거나 읽게 되는 청중 혹은 독자는 자신들의 삶을 그 주인공의 삶에 대입해 살고자 한다.

전기가 일차적으로 '교훈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칭송' 혹은 '찬미'의 장르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전기 장르가 교훈적이면서 선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들을 통해서 대변되는 '우리'에게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 이외의 '그들'에게는 선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전기형식을 통해서 저자는 주인공들의 삶 자체를 동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델로서 제시하며, 정체성의 표본으로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 소고의 초점은 족장 이야기가 어느 시대의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는가에 있다. 저자가 과거 전승들<sup>15)</sup>을 이와 같이 전기적 형식으로 저작함으로써, 동시대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본 소고는 공통된 형식으로 쓰인 이야기 속에서 흐르는 공통된 주제를 찾고, 그 주제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시대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을 제시할 것이다.

#### 4. 족장 전기의 주제

족장 이야기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는 먼저 아브라함 전기에서 언급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접점을 통해서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후 족장의

14) 이상섭, 「문학비평 용어사전」 개정판 (서울: 민음사, 2001), 300쪽. 전기의 목적과 기능은 사실의 보존이라기보다는 '민중의 교육'이었다.

15) 본 소고는 저작 이전 전승 형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고대 전승들을 모아 공통의 장르와 형식을 갖추게 했던 시기에 그 초점이 있다. 즉, 족장 이야기의 기원 자체가 후대라는 주장은 아님을 밝혀둔다.

이야기 속에서 흐르는 주요한 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창 12장 1-3절에서는 말씀의 형태를 통한 접점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2)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3)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주제는 모든 족장 전기의 핵심 주제가 된다.

#### 1) 땅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중 땅에 대한 약속은 족장 이야기 속에서 그다지 부각되어 강조되고 있지는 않다. 여호수아나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쟁취의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족장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그 곳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족장에 대한 약속에서 민족에 대한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약속의 땅은 단지 출애굽 이야기의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언급된 것일까? 단지 족장이 '그 땅'을 약속 받았다는 신학적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 전부인가?

본 소고는 족장 이야기에서 약속의 땅이라는 신학적 의미보다는 그 땅의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즉 그 땅은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창 12:7) 상태이다. 약속의 땅에 이방인과 공존하는 상태는 아브라함 이후 족장들의 이야기 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sup>16)</sup> 실제로 족장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땅의 소유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들은 그 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족장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땅은 이방의 땅이다. 족장들의 삶에서 한결같이 등장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바로 본향에서 떠나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본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고, 또한 약속된 그 곳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남쪽으로 길을 떠나 애굽까지 이른다. 이는 이삭-야곱-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목격된다.<sup>17)</sup> 이와 같이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는 땅의 상태는 또 다른 주제인 민족과 열방에 대한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6) 창 26: 34-35: 에서가 헷 족속의 딸들과 혼인함; 창 34장의 디나와 히위 족속 세겜의 사건.  
17) 킹은 특별히 야곱-요셉-모세-다윗의 이야기에서 망명과 귀향(회해)리는 구조를 찾아내어 이 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사의 주요한 맥락을 형성한다고 지적한다. J. R. King, "The Joseph Story and Divine Politics: A Comparative Study of a Biographic Formula from the Ancient Near East," *JBL* 106/4 (1987), 577-594쪽.

## 2) 민족과 열방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나머지 축복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과,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것이다.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열방의 개념이다. 창세기는 족장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은 한 곳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특별히 창 10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민족과 나머지 열방의 개념으로 나뉜다. 분명히 족장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강조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열방에 대한 태도이다. 열방은 배타적 민족주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지 않다. 열방은 전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고 공존하는 존재이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과 축복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그 공존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이방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재자로서 언급된다.<sup>18)</sup> 이스라엘은 열방을 구원하는 열쇠이다. 이러한 보편적 민족관은 이스라엘에게 선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더불어, 열방 구원의 열쇠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족장 이야기를 장르 형식적이고 주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이 이야기들이 동일한 문학적 장르와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족장 이야기들이 단일 저자에 의해서 저작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족장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자료 혹은 전승이 점차 편집되어 현재의 이야기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단일 저자의 분명한 저술 의도에 의해서 저작된 작품이다. 그렇다면 전기 장르로 족장 이야기를 읽을 때, 이를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해석은 무엇일까?

## 5. 전기적 관점에서 제기된 새로운 해석

과거, 전승의 인물, 그리고 현재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은 전기 장르의 주요 목적이 아니다. 전기는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현재의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 주인공은 전기를 읽는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이상적인 삶을 제시해 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족장 전기를 통해서 어떤 시기의 삶을 보여주려 했으며, 다시 말해, 이 단일 저자가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은 무엇일까?

18) 창 20장 아비멜렉; 창 39: 5 보디발, 그리고 물론 이루어지지지는 못했지만 창 18: 16 소돔.

물론 전기 장르를 사용한 것 자체가 연대 결정을 하는 데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전기 형식은 고대 근동의 문헌들에서도 많이 발견된다.<sup>19)</sup> 그렇다고 해서 족장 이야기를 근동의 문헌들과 유사한 시기의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 보다는 언제, 무슨 이유로 이 장르가 선호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아미트는 애가 형식의 장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포로 시대에 특별히 애가 장르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주장한다.<sup>20)</sup>

그렇다고 해서 그는 이 애가 장르가 이 시기에 생겨난 것이라든가, 이 시기에만 사용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 상황이 애가 장르를 다른 어떠한 장르보다 선호하게 만들었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족장의 전기 장르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전기 장르가 선호되었는가? 또한 전기적 관점을 통해서 제기되는 새로운 해석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족장 이야기가 모델이 되는 시기는 종교적으로 초기 종교가 아니라 후대의 종교를 반영한다. 족장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용어인 “X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구약성서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표현 중 많은 수가 하나님의 속성<sup>21)</sup>을 드러내는 표현과는 달리, 족장의 이름과 결합된 하나님의 통칭(epithet)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알트는 이러한 통칭을 사용하는 각각의 족장들이 특별한 수호신을 섬겼다는 조상신 가설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가장 오래된 유목민의 종교 형태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sup>22)</sup> 또한 그는 조상신 가설을 위한 외부 증

19) 대표적으로 ‘시누헤의 이야기’나, ‘이드리미의 이야기’, ‘핫투실리스의 변명’과 같은 고대의 전기 혹은 자서전적인 문헌이 있다. ‘시누헤의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A. Meinhold, “Die Geschichte des Sinuhe und die alttestamentliche Diasporanovelle,” *Wissenschaftliche Zeitschrift der Ernst-Moritz-Albert Universität* 20 (1971), 277-281쪽, 재인용 King, “The Joseph Story and Divine Politics,” 578쪽. 그 밖의 고대 자서전들에 대한 연구는, H. Tadmor, “Autobiographical Apology in the Royal Assyrian Literature,” H. Tadmor/M. Weinfeld(eds.), *History, Historiography and Interpretation: Studies in Biblical and Cuneiform Literature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83), 36-57쪽; T. Longman III, *Fictional Akkadian Autobiography: A Generic and Comparative Study*, (Indiana: Eisenbrauns, 1991) 참조.

20) Y. Amit, “Epoch and Genre: The Sixth Century and the Growth of Hidden Polemics,” O. Lipschits/J. Blenkinsopp(eds.),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Neo-Babylonian Period*, (Indiana: Eisenbrauns, 2003), 136쪽.

21)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신실한 하나님’, ‘응서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통칭들은 성서 전체에서 나타난다.

22) A. Alt, “The God of the Fathers,” A. Alt, *Essays on Old Testament History and Religion*, trans. R. A. Wilson, (Sheffield: JSOT Press Ltd., 1989), 3-66 쪽.

거 자료로서 팔미라 인들과 나바티아인들의 종교를 제시하였으나,<sup>23)</sup> 실제로 그가 제시한 비문들은 종교의 고대성을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후대의 자료이다. 오히려 “X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원시 종교 형태의 조상신 개념이라고 보다는 개인 경건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sup>24)</sup>

또한 특정 장소와 연관된 종교 형태가 아닌 유목적 종교의 형태라는 알트의 주장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sup>25)</sup> 물론 족장 이야기가 유목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족장 이야기에서 반영된 종교가 매우 원시적이고 고대의 형태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다르게 질문하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유목적 상황과 개인 경건이라는 신앙적 상황을 함께 설명할 방법이 고대 이스라엘 원시 종교설 뿐인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개인의 경건이 강조되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함께 나타났던 시기가 있었다. 바로 페르시아 시대가 그러하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이후로, 이스라엘은 함께 모여 제의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잃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예배 처소의 부재는 곧 포로 시대의 책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상징적인 표현들로 대체된다.<sup>26)</sup> 이제 성전이라는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건물에서,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신 현현의 표현방식이 주로 등장한다.<sup>27)</sup>

23) 윗글, 67-77쪽의 “Appendix: The Inscriptions”을 참조.

24) 라이너 알베르츠, 「이스라엘 종교사 I」 (강 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65쪽. 원제는 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25) 정착 문화권 안에서 발견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윗글 63쪽 각주 19번 참조.

26) 예를 들면, 겔 1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제 멸망할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와 포로민들과 함께 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문헌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 역시도 또 다른 예로 제시될 수 있겠다. 김 영진, 「이스라엘의 구원자, 야웨」 (서울: 이레서원, 2007), 239-243쪽; 이 사야, “야훼 임재와 상징과 영,” 「구약논단」 제 14권 4호 (2008), 185-198쪽; S. N. Bunta, “Yhwh’s Cultic Statue after 597/586 B.C.E.: A Linguistic and Theological Reinterpretation of Ezekiel 28: 12,” *CBQ* 69/2 (2007), 230쪽.

27)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라는 표현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른바 ‘신명기시기’가 성전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M. Weinfeld,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cal School*, (Winona Lake: Eisenbrauns, 1992), 324-325쪽. 그러나 이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과 중앙화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현존해 계신 곳이 제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의 족장들 이야기에서, 족장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창 21: 34; 26: 25).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곧 종교적 행위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는 바벨론 시대 동안, 이스라엘은 중앙화 된 곳에서의 통합된 제의가 불가능했으며, 오직 개인적인 신앙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포로기에 와서 집단의 신앙적인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개인의 신앙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sup>28)</sup> 이러한 개인 경건은 페르시아 시대에도 그대로 지속되었으며, 기원전 515년 제 2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인 경건의 형태는 공적 경건의 형태와 함께 공존하였다.<sup>29)</sup>

두 번째로, 족장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족장 이야기를 읽는 독자의 시대의 모델을 제시해 주기 위한 것이다. 물론 족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다. 그러나 족장 전기의 일차 목적은 단지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이해를 뛰어 넘는다.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핀다. 그렇다면 족장들의 삶은 어떤 삶을 대변하는가? 바로 페르시아 초기 이스라엘의 두 가지 형태의 삶을 대변한다. 첫째는 약속의 땅에 돌아 왔으나, 다른 민족적 요소들과 공존해야 하는 삶이고, 둘째는 이방에서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이 그것이다.

아브라함의 전기에서 시작되는 땅과 민족/열방에 대한 주제는 각각 이러한 측면에서 잘 이해 될 수 있다. 페르시아 시대와 그 이후의 문헌으로 이해되는 구약의 책들은 주로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며, 또한 디아스포라의 삶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난다(예; 에스터, 룻, 다니엘).

특히 족장들의 이야기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창 37 - 50장)가 페르시아

28) 겔 18장의 한 개인의 미래는 과거 선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앙적 선택에 의해서 결정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렘 31장 29-30절에서도 등장한다. 이는 신 24장 16절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또한 개인적인 신앙 양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바로 '금식'(צום)이다. 금식은 동사와 명사를 포함해서 구약성서에서 모두 47회 사용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주로 후대 문헌에 집중적으로 쓰였으며, 포로기 이전 예언서 안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샯 1회, 삼상 2회, 삼하 6회, 왕상 3회, 제3이사야 7회, 렘 3회, 율 3회, 온 1회, 슝 6회, 스 2회, 느 2회, 대상 1회, 대하 2회, 에 4회, 단 1회, 시 3회. 금식은 후대 문헌에서, 개인적 제의 의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스가라 7장에서 베넬 사람들이 하는 금식을 하는 것의 합당성을 묻는 이야기에서, 금식이 개인적 제의 양식으로서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9) 알베르트는 페르시아 시대의 공적인 종교적 기반을 이루는 신학전승과 개인적 경건에 해당 하는 신학전승이 함께 공존하던 시기였음을 지적한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제 2성전이 재건됨으로써 다시 제기된 공적 종교와 지금까지 성전 없이 지켜져 왔던 개인적 종교는 서로 충돌하면서도 함께 공존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공적 종교와 개인의 신앙의 수렴은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의 종교적 특징 중에 하나였다. R. Albertz,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trans. J. Bowden, 2 vo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4), 437-443쪽.

혹은 헬라(프톨레미) 시대 디아스포라의 삶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30)</sup> 그러나 본 소고의 분석에서 족장들의 이야기는 같은 형식의 서술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장들은 가나안 땅과 이방 땅에서의 삶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족장 전기가 바로 페르시아 시대의 가나안 땅의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족장 이야기는 보편주의적 신학을 대변하고 있다.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는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공존의 사회에 대해 유대인들 사이에서 보편주의적 신학(universalism)과 배타주의적 신학(particularism)의 형태의 양극단의 성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신학적 양극화 현상은 페르시아 시대에 저작된 성서 문헌 현상은 제 3 이사야(사 56: 1-2; 66: 22-23), 학개(학 2: 4), 스가랴(스 7: 5; 8: 23), 요나,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작품을 통해서 분명하게 입증된다. 먼저 제 3 이사야, 학개, 스가랴, 요나는 특징적으로 보편주의적 성향을 보여준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열린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별히 요나서는 요나를 통해서 배타주의적 성향의 유대인들을 풍자하기까지 한다.<sup>31)</sup> 이러한 관점이 페르시아 초기 시대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은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32)</sup>

30) 요셉 이야기가 페르시아 시대나 혹은 헬라시대의 문헌이라는 주장은 D. B. Redford, *A Study of the biblical Story of Joseph (Gen. 37-50)*, (Leiden: E. J. Brill, 1970); 요셉 이야기가 에스더처럼 페르시아 시대의 디아스포라 단편소설이라는 주장은 A. Meinhold, "Die Gattung der Josephsgeschichte und des Esterbuches: Diasporanovelle I & II," *ZAW* 87 (1975), 305-24쪽; *ZAW* 88 (1976), 72-93쪽; F. W. Golka, "Genesis 37-50: Joseph Story or Israel-Joseph Story?" *CBR* 2.2 (2004), 153-177쪽 참조.

31) 요나서의 장르에 대한 논의는 M. Burrows, "The Literary Category of the Book of Jonah," H. T. Frank/W. L. Reed(eds.), *Translating and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1970), 80-107쪽; T. D. Alexander, "Jonah and Genre," *Tyndale Bulletin* 36 (1985), 35-59쪽.

32) 에스라 6장 19-22절을 통해서, 에스라가 도착하기 이전에 유월절 축제를 통해 많은 수의 종교적 개종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וְכָל הַכֹּהֲנִים מִמִּצְרָיִם גִּיּוֹרֵי אֱלֹהִים לְרֹאשׁ לַיהוָה אֱלֹהֵי יִשְׂרָאֵל  
 스 6장 21b절에 나타나는 "이 땅의 이방의 부정한 것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과연 어떤 그룹에 대한 설명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많

결론적으로, 전기 장르의 기능은 단순하게 과거의 영웅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전기 속 주인공의 삶은 과거인의 삶만이 아닌 이야기를 읽는 독자의 삶을 대변한다. 족장 전기의 작가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전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개인에 대한 관심, 특별히 개인 경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땅-민족-열방의 주제에서 나타나는 공존의 주제와 더 나아가 보편주의적인 관점은 다음의 세 가지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게 하였다. 첫째, 이 단일 저자는 개인 경건의 형태가 여전히 만연해 있었던 페르시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며, 둘째, 이러한 개인 경건의 형태는 이방인과 공존해서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며, 그러므로 족장들의 이야기는 이들의 삶을 대변한다. 마지막으로, 족장 전기는 페르시아 초기 만연해 있던 보편주의적 신학의 모델을 제시한다.

## 6. 참고문헌

- 김 영진, 「이스라엘의 구원자, 야웨」 (서울: 이레서원, 2007).  
 김 지은, “유다 왕국 멸망 이후 토지 소유권에 대한 신학적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8).  
 알베르츠, 라이너, 「이스라엘 종교사 I」 (강 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이 사야, “야웨 임재와 상징과 영,” 「구약논단」 제 14권 4호(2008), 185-198쪽.

---

은 논의를 해 왔다. 먼저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유다 거주민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J. M. Meyers, *Land II Esdras*. (New York: Doubleday, 1974), 80쪽. 김 지은도 역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유다 거주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축제를 통해서 유다 사회가 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제시한다. 김 지은, “유다 왕국 멸망 이후 토지 소유권에 대한 신학적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8), 143-146쪽. 그러나 이 구절은 실제로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다. 이 구절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유다 거주민들을 넘어서서 더욱 광범위한 범주의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블렌킨슨은 이 범주에 사마리아 거주민들이 포함되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논의를 J. Blenkinsopp, *Ezra-Nehemiah: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8), 133쪽. 플레이쉬먼은 이 범주에 이방인 개종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논의를 J. Fleishman, “An Echo of Optimism in Ezra 6:19-22.” *HUCA* 69 (1998), 15-29 쪽. 이 구절은 민족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개종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는 이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행해진 초기 귀환공동체에 대한 비판(9-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였다. 초기 귀환공동체는 에스라-느헤미야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 신앙형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즉, 에스라-느헤미야가 지극히 배타주의적인 형태의 유대신앙을 주장했다면, 반면 초기 귀환공동체는 보편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를 보여준다.

- 이 상섭, 「문학비평 용어사전」 개정판 (서울: 민음사, 2001).
- Albertz, R.,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Trans. J. Bowden. 2 vol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4).
- Alexander, T. D., "Jonah and Genre," *Tyndale Bulletin* 36 (1985), 35-59쪽.
- Alt, A., *Essays on Old Testament History and Religion*. Trans. R. A. Wilson, (Sheffield: JSOT Press Ltd., 1989).
- Alter, R., "How Convention Helps Us Read: The Case of the Bible's Annunciation Type-Scene," *Prooftexts* 3 (1983), 115-30쪽.
- Amit, Y., "Epoch and Genre: The Sixth Century and the Growth of Hidden Polemics," O. Lipschits/J. Blenkinsopp(eds.),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Neo-Babylonian Period*, (Indiana: Eisenbrauns, 2003). 135-151쪽.
- Blenkinsopp, J., "Biographical Patterns in Biblical Narrative," *JSOI* 20 (1981), 27-46쪽.
- \_\_\_\_\_, *Ezra-Nehemiah: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8).
- Bunta, S. N., "Yhwh's Cultic Statue after 597/586 B.C.E.: A Linguistic and Theological Reinterpretation of Ezekiel 28: 12," *CBQ* 69/2 (2007), 222-241쪽.
- Burrows, M., "The Literary Category of the Book of Jonah," H. T. Frank/W. L. Reed(eds.), *Translating and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1970), 80-107쪽.
- Burridgs, R. A.,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aeco-Roman Biography*,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sup>2</sup>).
- Coats, G. W., *Genesis: With an Introduction to Narrative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4).
- Cross,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73).
- Driver, S. R.,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Mass.: Peter Smith, 1972).
- Fleishman, J., "An Echo of Optimism in Ezra 6: 19-22," *HUCA* 69 (1998), 15-29쪽.
- Fohrer, G.,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rans. D. E. Green, (Nashville: Abingdon, 1968).
- Golka, F. W., "Genesis 37-50: Joseph Story or Israel-Joseph Story?" *CBF* 2.2 (2004), 153-177쪽.
- Husser, J.-M., *Dreams and Dream Narratives in the Biblical World*, Trans. J. M. Munro, (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Ltd., 1999).
- King, J. R., "The Joseph Story and Divine Politics: A Comparative Study of

- a Biographic Formula from the Ancient Near East," *JBL* 106/4 (1987), 577-594쪽.
- Levin, Y., "Understanding Biblical Genealogies." *Currents in Research* 9 (2001), 11-46쪽.
- Longman III, T., *Fictional Akkadian Autobiography: A Generic and Comparative Study*, (Indiana: Eisenbrauns, 1991).
- Mandell, S./D. N. Freedman, *The Relationship between Herodotus' History and Primary History*, (Atlanta: Scholars Press, 1993).
- Momigliano, A., *The Development of Greek Biography*,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 Myers, J. M., *I and II Esdras*. (New York: Doubleday, 1974).
- \_\_\_\_\_, *Essays in Ancient and Modern Historiography*, (Oxford: Basil Blackwell, 1977).
- Pfeiffer, R. H.,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1).
- Redford, D. B., *A Study of the biblical Story of Joseph (Gen. 37-50)*, (Leiden: E. J. Brill, 1970).
- Sasson, J. M., "The Biographic Mode in Hebrew Historiography," W. B. Barrick/J. R. Spencer(eds.), *In the Shelter of Elyon: Essays on Ancient Palestinian Life and Literature in Honor of G. W. Ahlström* (JSOTS J1), (Sheffield: JSOT Press, 1984), 305-312쪽.
- Schmidt, W. H.,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rans. M. J. O'Connell, (London: SCM, 1984).
- Skinner, J.,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 (Edinburgh: T. and T. Clark, 1930<sup>2</sup>).
- Soggin, J. A.,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Westminster, 1976).
- Speiser, E. A., *Genesis*, (New York: Doubleday, 1964).
- Tadmor, H., "Autobiographical Apology in the Royal Assyrian Literature," H. Tadmor/M. Weinfeld(eds.), *History, Historiography and Interpretation: Studies in Biblical and Cuneiform Literature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83), 36-57쪽.
- Van Seters, J., *Abraham on History and Trad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5).
- \_\_\_\_\_, *In Search of History: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the Origins of Biblical History*, (New York: Vail-Ballou Press, 1981).
- \_\_\_\_\_, *Prologue to History: The Yahwist as Historian in Genesi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 Von Rad, G., *Genesis*, Trans. J. H. Mark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1).  
Weinfeld, M.,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c School*, (Winona Lake: Eisenbrauns, 1992).  
Whybray, R. N., *The Making of the Pentateuch: A Methodological Study*, (Sheffield: JSOT Press, 1987).  
Wilson, R. R., *Genealogy and History in the Biblical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 검색어

개인경건  
전기문학  
족장 이야기  
페르시아 시대  
포로기 이후 종교

투고일: 2010년 12월 30일  
심사일: 2010년 1월 19일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3일

---

## A Study of the Patriarchal Narrative through the Biographical Analysis

---

**You-Mee Lee**

Lecturer at Yonsei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Ph.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a form that the patriarchal narrative is constituted and to suggest a new interpretation through the synchronic approach.

First of all, it attempts finding a common structure in the descriptive style of the patriarchal narrative. The common structure is, chronologically framed, introduction(the appearance), climax(the achievement) and conclusion(the death). It is the biography that narrates the life of the individual in the basic chronological framework. This structure is also attested in the biographies of ancient Persia and Greek. Suggesting the example of life from the patriarchs' stories, the single author, who used a common narrative style in his work, answered to the theological questions which were needed in his time.

The model of life and the theology which the patriarchal narrative speaks for are as follows: First, the patriarchal narrative reflects the post-exilic period in which the personal piety was religiously emphasized. Second, the purpose of the narrative is not to inform the Israelite origin but to give the answer the contemporaries about their theological questions. So, through the

patriarchal biography, the author speaks about the coexistent life with foreigners and the life as diaspora. Third, the patriarchal narrative speaks for the universalism in the Persian period.

In sum, the patriarchal narrative is a biographical composition by an author. And it was written in the Persian period that the personal piety was prevalent. The personal piety was required to the Palestinian Jews who coexisted with foreigners and the diaspora in the Persian period. The patriarchal narrative represents the Jewish life in the Persian period.

### **Keywords**

biography  
patriarchal narrative  
Persian period  
personal piety  
post-exilic religion